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미당당 아카이브 워크숍: '나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 지금 이 자리, 임신중단 치외법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같은 음악을 틀고 진행하는 아카이브 워크숍! 다음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해주세요 :)

😎안녕하세요미파솔라시도레미

https://www.youtube.com/watch?v=FvlyttLEQlk&list=RDFvlyttLEQlk&start_radio=1&ab_channel=LuakaBop

안녕하세요 근데 제 이름이 뭔지는 익명의하마 세요 저한테 안 보내말이 그말이에요이네여?오 감사링이요
오 궁금하신 분 누구시지
저한테 써주신 분 다시 써주시면 말씀해드릴게요저요저에요 익명의 담비시네요감사합니다.

모두 잘 들어오셨나요? 아래에 자유롭게 인사해주세요!

서로 알려주셔도 좋아요! 플레이리스트 재생하셨나요? 그럼 다음
안내사항을 읽어주세요!

아뇨 사실 다른거 듣고있어요
다른 분은 익명의 로리스 세요로리스 그림은 너구리같네 꼭
네
그러게요 로리스가 뭐지
다른 거 ㅋㅋㅋㅋ 저는 틀렸어요

안내사항

저... 죄송한데 new incognito window가 어디에 있나요?아아 링크롬에서..우측상단 땡땡땡 버튼 눌러서

이미 익명으로 들어오셔서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그렇게까지 ...



장난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셔서

규칙

1.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관찰합니다.

2. 구글독에서는 익명의 동물이 되면 좋습니다.

- 크롬을 사용하는 경우, New Incognito Window 클릭
- 구글 문서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Dr1MzPDhyowTrfdOU8-7Tfq9Rt31U_CyP-QsefPiYo/edit?usp=sharing 붙여넣기

3. 각자 하나의 이모지를 캐릭터로 선택합니다.

4. 이모지로 자신이 쓴 글을 표시하거나 쓰인 글에 대해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5. 진행 중에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말이 있다면 모두에게 바로 공유해 주세요.

그럴 때는 불편 이모지



를 쓰고 이야기해봅시다. 다른 이들이 불편 이모지를 사용했다면 주의를 기울입니다.

6. 진행자의 공지는 코멘트로 구글독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7. 자유롭게 편집하셔도 됩니다. 공유하고 싶은 이미지나 사운드 링크도 좋아요.

8. 규칙은 참여자의 합의하에 바뀔 수 있고 버려지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9. 진행자가 던지는 질문은 놀이의 규칙과 같으므로 참여자가 합의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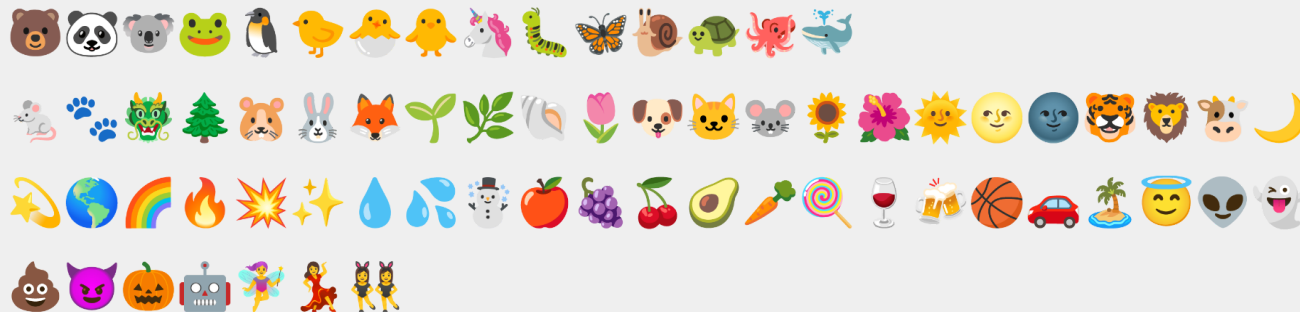
- 이 문서는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이야기가 있다면 모두에게 꺼내주세요.
- 우리 모두는 평등하며, 기록을 완성하는 주체입니다.
 - 다른 정체성 (프로젝트 안에서의 역할, 성별, 성적지향, 학교, 비건지향, 질병, 경험, 외모 등)에서 오는 관점을 존중해주세요.

- 각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만큼만 이야기합니다.
 - 얼마큼 이야기 할지는 스스로 정하며, 정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 각자에게 모순적인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존중합니다.
 - 우리는 각자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체예요. 이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주관적인 세계에 초대받으며,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이야기의 신뢰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그럼 이모지 인벤토리에서 이모지를 하나씩 정해
아래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모지 인벤토리

이모지참고 <https://emojipedia.org/>



불편 이모지 

붙여넣기



 (뒤늦은 참석)

모두 이모지를 골라 붙이셨나요?

네

네~

대기중..위에서 영자님이랑 대화중 아~

다들 어땠어요? Kwangya

네 죄송합니다!

아직 한분이 붙여넣기를 안해주셨어요~

이 이모지는 자신이 쓴 글을 표시하거나 공감 표시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럼 1번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에에

네

우리의 기록

질문1. 어떻게 나뭇불법 퍼포먼스를 기획하거나 참여하게 되었나요?



친구가 기획해서요 (..) 아맞아 women on web의 고퍼츠 선생님이 퍼포먼스 하자고 컨택해서 진행하던 와중 약간 변조?변주?되어 나뭇불법이 되었지요.

네덜란드의 의료진과 원격으로 화상 통화를 하며 로봇으로 약을 전달받은 한국인 퍼포머가 꿀꺽! 하자는 플랜을 거부하고 페미당당의

우지안 선생이 기획한 것..

그리고보니 코로나 이전이라 줌이나 화상통화가 되게 낯설던 시기넹 신기하다

 사실 시작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약봉지와 약들과 함께 있었어요 비가 왔고요? 처음에 우지안 선생이 어떤 역할? 참여를 제안했고 그것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깎두기로 남고 싶지가 않아서 뭔가 열심히 하려구

애써봤더니  짱이셔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왜 글씨가 작지요?  그러게요??

 언니들이 하길래 따라 갔습니다.  ㅋㅋㅋㅋ  더 자세히는 기억이 잘... 그냥 갔습니다..! 아 더 자세히는 과 친구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봄알람이랑 위민온웹이랑 함께 콜라보를 했는데... 시작은 어디더라 몸과 건강...?

연대?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에서 아니다. 모낙페에서 women on web의 레베카 고퍼츠를 초대했는데 고퍼츠 선생님이 페미당당에 연락해서 네덜란드의 의사가 원격으로 한국의 a girl에게 미프진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자고 제안했다. 

 대박구체적혹시기획자본인이신지   그런데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이고 한국은 그냥 한국이었고... a girl도 너무 좀 이상했다. 시혜적인 느낌을 줄까봐 우리는 고민했고 결국 여러가지로 연대의 의미를 넣어서 125명의 여자들이 함께 알약을 삼키는 / 그런데

누군가는 진짜 미프진을 먹고 누군가는 비타민을 먹어서 서로를 보호하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기로 했다. 🤡🤡 그때 예지랑 같이 봄알람 분들이랑 웨이즈 오브 씨잉에서 회의하던 기억과 소영 미섭과 곰퍼츠와 줌 하던 기억... 🌷 진짜 옛날같다 🤡

🌷 열심히 기록하시는 기획자분.. 🐭 ㅋㅋㅋㅋ

🐭 a girl은 로봇?! 이름인가요? 🌷 아뇨 그냥 참여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곰퍼츠 선생의 표현..

🍷 한 소녀요

🐭 네네! 🤡

🥕 친구들이 하길래 한 게 가장 크고, 지안이랑 그 때 같이 수업듣고 있었는데 지안이가 맨날 수업듣다가 피폐해져서 고민하고 있어서 그걸 돕다가 어찌다보니 열심히 하고 있었다?

모두 1번을 다 쓰셨나요? 다른 분들이 쓰신 코멘트에 공감된다면,
이모지를 달아 표시해주세요! 1번을 다 쓰셨나요? 2번으로
넘어가볼까요?

🌸 네 🧡 네 🐭 네

질문2. 나뭇불법 퍼포먼스의 타임라인을 돌이켜본다면? 준비 과정과 당일 진행은 어땠나요?

🌸 준비 과정...해일 앞에서 기록된 홍대 어드매의 카페에서 진행했던 곰퍼츠와의 원격
회의가 기억나구..그리고 나서 무신 행사때매 곰퍼츠 내한(마치 레이디가가처럼)해서
카페에서 만났고..그리고 얼마 지나 실제 퍼포 진행함. 퍼포 당일 대박 수상한
🐭 ㅋㅋㅋㅋ 🌸 스터디카페에 모여서 (햇빛이 안드는 골방느낌 🧡) 포퍼먼스용 약상자를

열심히 접었음 인형에 눈 붙이듯 (언피씨?). 퍼포먼스는 상당히 스무스했음..구경하러 온 사람이 꽤 많아서 감동했음. 실제일수도 있는 알약을 삼키는 퍼포먼스라 잡혀가면 어쩌지 어쩌고 걱정했던거같은데 전혀..문제없이 마무리됨.🐭

👻준비 스태프 단톡방에 초대되었고,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봄알람 분들과 대면회의를 하고 또 역할을 나눴던가...? 그래서 약이랑 출석부 같은 준비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당일에 보신각 근처에 있는 토즈 회의실에 모여서 약봉지에 약 넣고 고데기로 봉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대박 수상한 카페가 토즈 회의실??👻🌸ㅋㅋㅋㅋㅋㅋ맞겠지👻그 뒤에 그것들을 가지고 보신각에 갔는데 비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참여자가 오면 신청자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해 동그라미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자들이 다가올 때면 기분이 설렸습니다..🐭맞아호정이 접수받았던 거 기억나 나는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호정이랑 예운 찾고 안심했던 듯 호정이랑 인사했었어👻활동 경험이 많은 분들이/친구들이 많아서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짐이 될까봐 발동동했는데 그건 그냥 제가 그때부터 불안장애였는데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 🍷 🍷 참여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앉아서 발언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울고 웃고 그랬고 행인들도 멈춰서 우리를 지켜봤는데 나쁘지 않은 시선이라 안심했던 기억. 🐭 맞아 나는 아저씨 기자분들 많아서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 🍻 약 먹는 퍼포먼스 뒤에 사람들에게 빨리 물을 나눠줬어야 됐는데 많은 종이컵에 물을 빨리 따르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조금했는데요 🌸 이런 역할두 있었규나 우리 물 없이 삼키지 않았나? 🍻 물 없이 삼켰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종이컵이랑 물을 준비해줬다가 사진 다 찍고나서 쟁반에 물 따라서 돌렸어요! 어떤 분(루나)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화분에 물주듯이 주루루 따라서 가져다 주셔서 기뻐합니다. 🐭

🐭 일단 약간 우중충?한 여름이었고 회색 하늘에 우산이 있었던 것도 같고..? 🌸 비 안왔던거같은데 🐭 ㅋㅋㅋㅋ 역시 아니었음 🐭 아님 말입니다. 🍻 저는 비온것같았어요 그런데 많이는 아니었던 그리고 다같이 우산 들고 장우산 쥘고 걸어갔던 기억 같은 게 나는데...! 🐭 오!! 정말 기억이 다르구나 🐭 갔더니 아는 사람이 일단 엄청 많았어요 폐당 언니들 말고도 중학교 동창 친구들을 거의 6,7년 만에 본 거였는데 그때 ㅇㅇ중 완전

메갈중이었네 하면서 웃었던 거 기억나고 약간 어수선하고 이미 사람이 많이 와 있었는데 어디 앉지 하다가 끝에 줄에 앉아서 종이 받아서 진행을 따랐다! 이제 한 분씩 나와서 낙태 경험을 말하는 시간 같은 것이 있었는데 머리 길었던 분도 있었고, 짧았던 분도 말씀하셨었고. 휠체어 타신 분도 말씀하셨다. 그분은 머리를 묶었던 듯.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다같이 몇줄로 서가지고 알약 혀에 붙이고 뭘 혀 내밀기 🍷 🍷 (ㅋㅋㅋ) 🐭하고 사진 찍었다! 끝나고 인사 나누고 그 때 친구가 루나 팬이라고 해서 인사 시켜주고 그랬었다! 😊 그때 서로 인사나누고 소개해주고 하는 장면이 이상한 사고 파티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 🐭아맛다 그리고 참여하기 전에 선언문에 들어갈 선언 한 줄 보내는 거 너무 늦게 보내가지고 안 들어간 거 웃겼음. 안 들어가길 잘한 내용이었음. 말하기 싫어서 말 안해야지 🍷 맞아 그게 있었지! 근데 선언문 말고 구호로 외쳤던 기억이 나. 나눠줬던 종이에 한마디 구호들이 있어서 발언 한 번 하고 구호 세네개 외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근데 발언들이 너무 좋았어 다들... “이건 누구한테도 하지 못한, 지금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하면서 시작했어 🐭아 맞네 무튼 그런 나는 ~~~로서 ~~~낙태죄 폐지를 원한다 이런 형식이었던 것 같다.

🍷 당시에 한 번 연기가 되었었어요. 원래 하려던 날짜가 모낙페 퍼레이드 날짜였는데, 그게 랜팜 행사랑 겹쳐서? 날짜를 빼앗아간다는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나뭇불법 팀 내부에 있었어요. 🐭 기억남 저는 한 번 미뤄지면 영영 못하게 될까봐도 걱정되고, 다시 언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때 화용이 한 명이라도 공격이 많이 걱정되면 안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그때 당시 학교 미대 바위에서 예지랑 고민하다가 누워서 결정했던 기억이 나요. 🌸 미대바위ππ머라고 불렀지 벌써 까먹음 🐭 결국 한 번 미루기로 했고, 그래서 8월 26일로 날짜가 잡혔죠. 당시에는 곰퍼츠가 한국에 없었어서, 저희끼리 (봄알람, 페미당당)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125명 안모이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는데 사실 125명보다 많이 모였어요. 🤪 🐭 근데 안오는 사람 있을 것 예상해서 132명?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 당시 하루에 낙태하는 사람이 3000명 추산이라서 24시간으로 나눠서 125명으로 상징적 숫자로 정했어요. 그리고 다같이 선언문 읽을 때 무척 울컥했던 기억... 🐭 그리고 모두가 다같이 너무 잘 읽었다. 🐭 맞아 다들 하나처럼 잘 읽어서 매우 신기하고 감동이고 뿌듯했다! 자랑스러웠다 🤪 그런데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기침을 해서 그건 조금 재미있었다. 그만큼 열정 있으셨던
거지. 🐭 ㅋㅋㅋ 민경씨가 초안을 썼던 선언문. 🤖 근데 지안이가 기독교 관련 행 실수로
빼먹어서 다시 읽었던 것도 기억나고 재밌었습니다. 🍷 헉 지안이가 그랬나??! 그리고
전날인가 며칠 안남았을 때 윤정원 선생님이 왜 안부르냐고 서운해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 싫어하실 줄 알고 안불렀는데... 이러면서 윤정원 선생님이랑 예윤에게 혹시
모를 위급상황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약을 다같이 먹고 혀를 베~ 내보이고... 끝나고 미국
기독교 신문에서 125명의 사탄? 🐭 한국 여자들이 낙태약을 먹었다고 뉴스 남. 🌷 우와
아카이빙에 제발 넣어줘 (?)

🌷 선언문 읽을때 정말..찌렁찌렁 짜릿 모먼트.

🥕 어느날부터 친구들이 고퍼츠 선생과 연락을 하더니 고평생이 자판기 퍼포를 매우
마음에 들어한다고 우리와 한국에서 퍼포를 하고 싶어한다고 했다.(정확하진 않음) 그래서
우리도 고퍼츠 선생과 함께라면 뭔갈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고평생께서

제안하신 것이 위에 말한대로 시혜적으로 해석되거나 (혹은 시혜적이었거나) 원격의료 등의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등등 ‘이건 아닌데!’ 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퍼포를 조금씩 뜯어고치다보니 그냥 새로운 퍼포가 나왔다. 근데 그래서 좋았지. 이 당시 우리가 자판기 퍼포하면서 윤정원쌤/장애여성공감 등 쓰까페미 진영과의 긴장도 있었고 램팸과 한창 팽팽하여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어디로부터 욕먹지 않을까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던 기억이 있음. 당시 지안이가 모낙폐 톡방에도 있었고 회의도 갔는데 이런걸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걱정과 염려, 비난을 하셔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렵고 안그래도 램팸과 한창 분리되고 대립되는 시기에 쓰까 단체들 사이에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근데 또 우리의 그나마 믿을 구석이었던 곰선생은 너무 당연하게 미프진에 부작용이 0이라는 말 등 너무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서 건강관련 전문가가 아닌 단체로서 되게 어려웠던 기억 있다. 아무쪼록 그 긴장 속에서도 웨웁씨잉이나 미대 느티나무에서 열심히 기획을 구체화해서 행사 모양새를 잡았고 그 뒤로 나는 아마 여행다녀왔나 그래서 당일에 급하게 현장스텝으로 참여했음. 비는 오다말다 했던 것 같고 당시 인쇄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놀랐던 기억 있다. 그리고 봉추찜닭은 준비하는 중에

먹었음. 그리고 우리가 이 때 처음으로 우리 행사에서 비건 어찌구를 했었는데, 비건
비타민을 별도로 준비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비건 옵션을 두는게 아니라 그냥 모두 비건
비타민으로 해도 좋았겠다. 🍷 그리고 싶었는데 비건 비타민이 하나가 배송이 너무
늦게와서 수량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했던...

여러분, 2번을 다 쓰셨나요? 3번으로 넘어가볼까요?

🍷 제안이 하나 있는데 우리 나중에 보기 편하게 색깔을 다르게 쓰면 어때요? 난 보라
🐭 완전 그룹시다 저는 노랑색할게요 아 잘 안보이는데 익명의 담비씨 어디가셨지 넵
👻 그룹시다 저는 초록색 눈이 편안한. 내가 담비인줄 알았는데 🐭 당신은 로리스
👻 로리스가 뭘까 고맙습니다.

질문3. 나뭇불법 퍼포먼스에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긍정적인 순간과 부정적으로 떠오르는 순간을 말해봅시다.

 저는 퍼포먼스가 미뤄져서 미래가 불투명할 때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예지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콜라보라서도 그렇고 저희가 워낙 준비를 오랜 기간동안 여러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리더십? 같은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하더라도 팀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믿음을 요구할 수 있는 법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멋지다  외로웠을까봐 또 긍정적으로 떠오르는 순간은 퍼포먼스에서 사람들이 너무 슬프고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던,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 거구나 라고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발언이 하나 하나 다 너무 좋았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 안나지만 하나 하나 진짜 그 세계가 느껴진다고 해야하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발언들이었던 것 같애.

🐭앞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소중했던 것 같다. 그리고 끝나고 어머니가 딸과 손잡고 기획자 분들과 말씀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감동적이었다. 그때는 끝나고 자랑스럽게 인스타그램에 이거 다녀온 걸 올렸었고 두려움이 없었다. 지금 다녀왔으면 친한친구 스토리로만 올리지 게시물로 올릴 용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더 용감했다는 기억이 나에게 좋은 기억이다. 🤗나도 이것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지 게시물로 올릴지 1200시간동안 🐭ㅋㅋㅋ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올렸어?둘 다 올렸던 것 같다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몇줄로 서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신나 있었다. 보신각이라는 공공의 장소에서 자랑스럽게 퍼포먼스를 한다는 사실이 계속 좋았다. 🍷나도 그게 참 좋았어 왜냐면 그냥 보신각 대로변이라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고 오래 보고 가기도 했잖아. 근데 우리가 일상을 깨뜨린다 🐭는 느낌이 들어서 참 용기나고 스스로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 일상적 공간에 낙태약이랑 낙태하는 여성의 몸들이 두둥 하고 짤 나타나는 경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무척 의미있다 다시 생각해도

😁맞다. (웃음) 그리고 그 앞이 퇴근시간이라 헤테로 커플이 많이 지나다녔는데 남성 친구의 손을 붙들고 거기 멈춰서 이야기를 듣는 여성 분들🐭을 보며 우리가 어떤 대변인? 대신 말해주는 자가 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다. 🌷맞아 커플들이 지나가면서 뭐야? 저기 뭐하는거야? 궁금해하거나 속 지나가버리거나..행인들을 유심히 쳐다봤던 기억이 나.

😁저는 혀에 알약을 붙이고 사진이 찍히는 일정 시간동안 기다리던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발언하신 분들이랑 일정 간격으로 앞뒤에 계셨던 분들 모두가 가까이 서서 혀를 내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데 주변에서 행인들은 걸어다니고 웃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조금은 외롭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여서 그 순간이 응고된 것 같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그 뒤에는 진짜로 미프진을 먹은 사람들이 잘못될까봐 많이 무서웠다.

🐭🍷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는 사실 진짜 약 먹었는데 나도 조금은 무서웠던 것 같다. 그치만 의사도 두명이나 있고 고퍼츠가 아무런 일도 없을거라고 해서 그냥 사실 별 두려움

없이 먹었던 것 같애. 🙌 고마워! 하지만 그 무서움을 드러내면 그들의 용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만 있었던 것 같다. 🐭

🌸 모냐 하는데 딸과 같이 구경온 어머니 분이 딸한테 땡땡이 너를 위해 언니들이 이 퍼포먼스 하는거야~하시는 것을 듣고 많이 감동했다. 🐭 혈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감동이다 🍷 나도 이거 기억나서 오늘 워크샵 하기 전에 꼭 써야지! 했던 기억인데.

🙌 저는 이것을 뒤에 트위터에서인가 전해 읽고? 전해 듣고 감동을 받았다. 125명 다같이 선언문 읽는 것 자체도 힘이 됐고. 파급력도 꽤 있었던 것 같다 사진과 기사 등. 어쨌든 힘내서 막판까지 마무리하게 되는 순간들 많았어. 🍷 🍷

🥕 나도 애기랑 같이온 분 생각나. 신청하고 온 분은 아니고 지나가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와서 계속 보시고 손피켓같은 것도 받아갔었어. 위에 나온대로 발언들이 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당시 불편한 용기 시위가 사람 되게 많이 모이고 있었는데 시위에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가능하고 촬영도 절대 안되고 인터뷰도 안돼서 경찰이나 언론 측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냐 저렇게 해도 되냐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돌아서 기억에 남는다. 당시 아무래도 퍼포가 퍼포다보니+당시 여성 이슈 시위 참가자 대상 백래시가 너무 심해서 폐당이 하는 행사 중 처음으로 사진촬영 안되는 퍼포였던것도 기억나고. 우리가 하던 행사들에 비해 확실히 결연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전까진 무슨 일에 뭘 해도 신나게 다 때려부수는 느낌의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의 페미들이 진영 별로 너무 나뉘고 우리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낙태죄 상황도 진짜 지긋지긋하게 돌아가니까 되게 엄근진 행사가 됐던게.. 우리 안에서도 전환점이었을까 싶기도 하다. 엄근진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아지면서 딱딱해진 것…?

질문 3을 다 쓰셨나요? 4로 넘어가봅시다!

 네!

 네

질문4. 나뭇불법 퍼포먼스를 준비하거나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만 아는 기억이 있다면?

 앞에서 다 써버린 것 같은데...? 아! 그날 나 사회본다고 소영이가 멋쟁이 드레스랑 닥터마틴 신발 빌려줬는데 닥터마틴 신발이 너무 아파서 발 다까지고 거의 못걸을 지경이 되었는데 사회는 봐야해서 속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발을 질질 끌고 걸던 것. 그래서 오히려 더 웃어댔는데 나중에 트위터에 ‘사회자분 계속 웃어서 그점이 별로였다’는 요지의 리뷰가 올라와서 2차 피눈물남 .

 내가 빌려준 신발ㅠㅠ너무 아파해서 미안했음..  헐 미안해하지마ㅠㅠ 감동이네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져 이제와서  ㅋㅋㅋn년뒤의 따뜻  오 근데 그날 지안언니(익명 깨서 미안) 룩 엄청 예뻐고 머리 길었고 발표 엄청 잘했어 떨면서   맞아 진행 진짜

잘함 전혀 긴장한 티 안나고 역시 지안이!라는 생각 했음 🍷🍷👻👻예뻐서 나도 다음
광장 때는 예쁘게 하고 오리라고 생각했다. 🍷🍷🐭로리스씨도 완전 아름다웠어 그때도
뭔가 눈을 뚱그랗게 뜨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호정 봐서 설렌것, 👻지안언니 친구 ㅇㅇ 언니 오랜만에 봤는데
머리가 짧아졌는데 너무 잘어울리고 여전히 여신이라고 생각한 것. 아 맞다! 엄마도
왔었다. 엄마가 그 언니 보고 여신이라고 칭찬했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왔던 친구도
인스타에 이 행동에 참여한 걸 올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우와 이게 이 친구한테 많이
의미있구나 좋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더 날 보고 용기를 냈구나
싶고 그 때의 나를 더 부둥부둥 자랑스러워해야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 👻

👻스타벅스... 에서 뭐 샀는데 한창 빨대 이슈 때라서 사서 들어오면서 봄알람분들한테 안
보이고 싶어서 빨대 숨긴것...? 버린것...?🐭ㅋㅋㅋㅋ완전 한결같아 그때는 종이빨대가
아니었구나 옛날이다

🤩 흠어지는 무렵에 발언자 A가 발언자 B에게 용기내 다가가 발언 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뒤에서 봤다. 🍷 헐 진짜?ㅠㅠ 용기... 넘 소중한 🤩 말 건 분인지 말 들은 분인지 한 분이 '나비'였다. 그분은 자신이 임신중단이 불법이라서 태어난 사람인데 임신중단을 했다고 하셨던 것 같음.

🌸 다같이 끝나고 뭐먹었지..봉추찜닭 먹었던 것 같음 나의 강한 추천으로..아닐수도있고 근데 거기 봉추 지점 이젠 없어진거같음. 퍼포먼스 끝나고 열심히 번역해서 보낸 것으로 Women on Web 웹사이트에 긴 포스팅 올라갔는데 되게 뿌듯했음. 🍷 커리 먹지 않았냐? 그... 일본... 그 이름 뭐더라.아니아니 아 응. 코코 이찌방야 🤩 카레를 먹었다.

🍷 🍷 맞아 소영이가 번역 열심히 했던 것 기억나. 끝나고 실시간으로 그 긴 선언문을 번역했던 것 같은데 실시간이 아닌가? 무튼 엄청나게 빨리 해서 보냈다. 그래서 그때 무척 감탄했던 기억.

🌸 그랬나..코코커리?ㅋㅋㅋㅋ응 🍷 ㅋㅋㅋㅋㅋㅋ

🥕나는 시위 끝나고 화용, 천석과 어떤 할저씨 시비 붙은 것 생각남. 그냥 술먹은 부랑인이었고 할저씨가 시비걸어서 화용과 천석이 또 반말로 막 상대하고 결국 경찰불렀었다. 근데 우리가 집시 신고해서 의경들이랑 경찰들 와있었는데 시위 참여자를 보호하기도 하려고 오는 거잖아? 근데 그 의경들이 너무 낮놓고 있어서 짜증났던 기억도 남. 또 경찰 와서 늘 그렇듯 할저씨한테는 선생님 선생님하면서 대하고 우리한테는 어차피 잡아가도 뭐 벌금 낼 돈도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설득하고..

🐭전 슬슬 어지럽네여...ㅜㅜ 🧸쉬어요 ㅠㅠ

🌷에궁..쉬시어요

여러분, 질문 5, 6을 합치겠습니다! 다들 조금씩 지치시는 것
같아서요~

🌸 감사합니다 🐭 ㅋㅋㅋㅋ 🌸 ㅋㅋㅋㅋㅋㅋㅋ 앓왜지워 다시췌군. 벌써 한시간 다되감
🐭 좋아요~! 🧛 같이 지쳐서 좋아요. 🍷

질문5. 나뭇불법 퍼포먼스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순간'이 있다면? 퍼포먼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 그냥 그때 당시 폐당의 모든 활동이 그랬듯이 함께한다는 느낌이 아주 강했음. 팀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 항상 참여해주는 사람들, 응원해주는 인터넷의
수많은..네 티 존..🐭 그리고 열심히 찾아와서 기록해준 기자분들. 매번 고생해서 무언갈
하면 validate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만큼 그 느낌에 의지해서 활동했던 것 같음. 이제는
그때 생각하면 비터스윗해.. 🧛 엄청난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아련하고
슬프고 뿌듯하고 난리남..어쨌든 난 그때 내가 우리가 하는 활동에 투자한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고 가장 바쁘고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 넘 감동 🐭 🧛 🧛

🐭 다같이 한 목소리 되어 우렁차게 선언문을 낭독한 순간은 참여한 사람 모두가 기억할 거다. 🌷🌷 세월이 흘러서 내가 딸이 생기면 딸에게, 할머니가 되면 손녀에게 🧛, 아니면 아들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이런 것도 해봤다 얘기해주고 싶은 일. 언제까지고 용기로 남을 기억이다. 🍷 🍷

🧛 페미당당 친구들하고만 지내는 게 그때에도 익숙했는데 활동을 통해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논의하며 비페당인들의 특징(?)을 느끼는 감각을 새로 기를 수 있었으며 포부가 커졌던 것 같다. 🐭 같이 캐리어를 끌고 밥을 먹으러 가서 거대 테이블에 모두가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의 친구라는 게 못견디게 자랑스러웠다. 🐭 나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지점이 따로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었다. 🍷

🍷 일단 당시 낙태죄 폐지가 안되었었는데 불법적인 행동을 대놓고 한다는 점이 모두에게 은밀한 공범의 쾌감?을 주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해방감을 주었던 듯 함. 금기시되는

낙태라는 행위를 일상적 공간에서 모두가 보는데 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연대하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점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큼 의미있었던 것 같다 🤡🤡🤡🤡. 아쉬운 점은...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데, 진짜 임신하신 분이 퍼포먼스에 와서 미프진을 먹어도 되냐고 하셨었는데, 우리가 약은 보내드리거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퍼포먼스시에 약을 드시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안될 것 같다고 한 일. 그때도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혹시라도 건강이 위험하게 될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안전한 방향을 택했던 것 같다. 🐭🍷 아쉬우면서도 그렇게 안전하게? 매사에 조심하는 법을 폐당과 일하면서 배웠던 것 같다. 무모해보이면서도 모두를 신경쓰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누군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지만 비겁하지는 않게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간동안 우리가 원칙으로 삼으려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뽀뽀낙 퍼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내용적으로도 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무척 의미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다행이야 모두 수고했어요~!

질문에 모두 답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느낀점을 적어주세요 :)

‘나몸불법’ 퍼포먼스를 기록한 오늘: 느낀점

 항상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하는 지안 너무 수고 많았어. 오늘 퀴어퍼레이드 혼자 나가서 행진한 것도 힘들었을텐데 정말 하루를 꽉채워 보냈네 내일두 힘내자~.

 지안 오늘 일찍부터 고생이 많아서 지쳤을 텐데 이렇게 멋진 워크샵 진행해주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북극의 빙하가 아직 녹지 않고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아이스우먼 지안

 이모지를 활용해서 재밌게 놀았다~~! 역시 지뽕이는 기획을 잘하는 듯. 이제 졸리니깐
자야겠당 

 위의 생쥐의 말을 보고 생각난건데 지뽕이는 무엇이든 놀이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저도 눈과 머리가 아주 아프기 시작해서 이만 가보겠다. 고맙습니다.

 다들 고맙고 함께 기록해주어 고마워요. 나만 혼자 말 많이 하면 어찌지 고민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내가 모르는 많은 기억들이 기록되었다. 역시 친구들을 믿어야 해.

사랑해! 🤗🤗🐭🐭 친구 절대민 🍷🍷 어 나도 그생각들었는데언니가 바꿔놓자
🤗 초록은 나인데

🥕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더듬어보니 내 친구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나도 함께 대단할 수 있었다는걸 실감하네. 다들 사랑해!

여러분, 정해진 시간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찬찬히 둘러보시고
추가하고 싶은 말을 더하셔도 좋고, 아래에서 인사를 하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워크샵 포맷은 김영주 작가의 플레이풀케어 워크숍에서
DocGame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참고: <https://limakim.itch.io/playfulcareproject>

 안녕~!!

 안녕~~ 잘자

 안녕! 잘자

안녕! 잘자!